

4 과 겸손함으로 하나됨 2026 년 1 월 24 일

일. 불화의 근원 (빌 2:1-3)

- ❖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서 시작된 불화의 정확한 원인을 지적하기 전에, 그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줄 어떤 조언을 합니까 (빌 2:1-2)?
 -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함. 그리스도의 삶을 연구하고 본 받아 실천함
 - 사랑으로 서로 위로함.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심
 - 성령으로 교제함. 성령님의 인도와 말씀을 순종함
 - 진심이 전해지는 관심. 따뜻하며 부드러운 인간적인 애정이 담긴 말과 행동
 - 긍휼을 베풀. 개인적으로 자비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함
 -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됨.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교인들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로 연결해줍니다
- ❖ 위의 변화를 경험하려면 서로를 갈라놓는 교만과 다툼을 버려야만 합니다 (빌 2:3a).
- ❖ 이러한 교만과 다툼은 모두 루스벨이 최초로 반역할 때 보여주었던 문제들이며, 인간 관계를 해치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 중 하나입니다 (갈 5:26; 약 3:16)

이. 겸손함으로 하나됨 (빌 2:3-4)

- ❖ 바울이 당부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뿐만 아니라 내면의 태도, 즉 겸손함으로 하나되는 것입니다. 겸손함은 예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특징 중 하나일 뿐 아니라,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겸손함을 가르치셨습니다 (마 11:29; 18:4; 23:12).
- ❖ 바울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(빌 2:3).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지 않습니까? 진정으로 하나가 되려면 모두가 동등해야 하지 않을까요?
- ❖ 여기서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열등하다는 것이 아니라,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. 마치 주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잘 되기를 바라듯이, 우리도 자신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(빌 2:4).
- ❖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. 성령님께서 도우실 때에만 이런 변화가 찾아옵니다.

삼. 예수님과 같이 생각함 (빌 2:5)

- ❖ 우리의 생각들은 어떻게 형성될까요? 바로 “영혼으로 향하는 길”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감각들을 통해서입니다. 우리가 읽고 보고 듣는 모든 것은 어떤 방식으로 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. 그리고 (이를 잘 이해하는) 사탄은 우리의 감각을 이용해 우리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.
- ❖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. 우리에게 자신의 생각을 살펴볼 뿐 아니라,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처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(빌 4:8; 2:5).
- ❖ 우리가 엄청나게 애써서 그의 첫번째 요구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만 가능합니다.
- ❖ 이는 우리의 생각은 본능적이고 우리의 마음은 간사하기 때문입니다(렘 17:9). 성령님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와 같은 영적인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(롬 8:1, 5).

사. 예수님의 태도(자세) (빌 2:6-8)

- ❖ 바울은 예수님의 세 특성들을 강조합니다:
 - 하나님으로서의 특권을 포기하셨고 (빌. 2:6)
 -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인간이 되셨고 (빌. 2:7)
 -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 (빌. 2:8)
- ❖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.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.
- ❖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다른 두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계셨지만,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. 그분은 단 한 순간도 순종하기를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.
- ❖ 이 사실을 생각할 때, 우리는 오직 놀라운 구세주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.
- ❖ 그분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십니다. 우리는 기꺼이 겸손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.
- ❖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한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분의 겸비함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토록 연구하게 될 주제가 될 것입니다.
- ❖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께서 유한하고 죽음에 굴복할 수 밖에 없는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. 바울은 이를 “경건의 비밀”(딤후 3:16)이라고 했습니다.
- ❖ 우주의 최고 권위를 누리시던 분께서 압도적으로 낮아진 종의 위치로 내려오셨습니다. 이것은 종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최고 권위를 차지하려 했던 루스벨의 태도와는 정반대였습니다.
- ❖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기심과 대접받고 싶은 욕망을 버리고, 대신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십니다.